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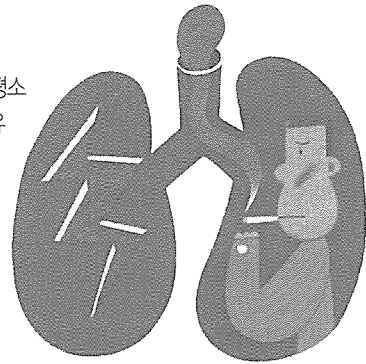
#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 폐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폐암 유소견 현황(1999년 7월 중)

암 검진인원	지 부 별	폐질환 유소견자(529명)	폐암 확진자(5명)
27,397명	서 울	2명	-
	부 산	480명	-
	인 천	10명	2명
	울 산	1명	1명
	경 기	2명	2명
	강 원	14명	-
	충 북	1명	-
	전 북	19명	-

## 폐암 조기 발견 사례

경북 경산시에 사는 추종호씨. 거의 매일 소주와 담배를 즐겼지만 평소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추씨는 2년 전 경산시 보건소 황혜숙씨의 권유로 폐암검진을 받았다. 여기서 폐암을 조기발견한 추종호씨는 대구 영남대학병원에서 최종 확진 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 또 울산에 거주하는 김○○씨(여, 56세)는 건협 울산광역시 지부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폐암이란

폐암은 어느 암보다도 그 발생 이유가 분명한 암이다. 즉 폐암의 95%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의 발암물질에 의한 것이다. 광산이나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폐암에 걸렸다면 담배가 그 원인일 확률이 높다.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높다고 한다.

폐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없이 기침이 계속된다. 그래서 감기 정도로 쉽게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인 폐암의 자각증상은 식욕감퇴·체중감소·권태·피로·호흡곤란 등이다. 암이 진행되는 경우는 심한 기침과 혈담·흉통·발열 등과 함께 목이 쉬거나 목과 얼굴이 붓는다.

중년 이상의 흡연자가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아졌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또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이유없이 목선 소리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폐암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하루 한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중년 이상의 남자는 연 1~2회씩 정기적으로 흉부 X선 촬영과 객담검사를 받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따라서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연이다. 그리고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중년 이상의 남자는 연 1~2회씩 정기검진을 받아 폐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